

나주 천연색소 경쟁력 강화 지원 박차

시, OEM·가공장비 임대사용 등 위탁비 최대 500만원...7일까지 천연색소센터 신청

나주시가 농식품 가공활성화와 미래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천연색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나주시는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이하 천연색소센터)를 통해 OEM·장비 임대사용 등의 방식으로 천연색소를 추출·농축하거나 농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필요한 위탁가공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 사업장 또는 지점 소재지가 전남도 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 전남산 원료작물 천연색소를 추출·농축하고자 할 경우 가공원료 국내산 비중이 50%이상이면 천연색소 함유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시는 천연색소센터를 통해 천연색소 또는 농식품을 위탁·생산하거나 시설 내 가공생산 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데 소요 비용 50%(최대 50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가공원료 구입비, 원료·제품 수송비는 지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천연색소센터로 오는 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희망 시 위탁 제조·가공 발주서, 지역(국내)산 원료 사용 증빙 서류, 국제·지방세 납세증명원을 비롯해 원산지·시제품 성분표시, 연간 농산물 가공사용량 및 매출액, 제품생산 경력 등에 대한 증빙 자료다.

나주시 동수농공단지에 위치한 천연색소센터는 대규모 농식품 가공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책사업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천연색소 추출을 위해 배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업을 통해 지난 2016년 연면적 3967㎡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동결건조, 추출·농축, 발효 및 분쇄에 포장까지 식품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 장비와 생산라인을 구축, 가공제품 OEM 및 임가공, 자체상품 연구개발, 설비 임대, 제조기술 컨설팅,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과제주스 및 과채가공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해설·HACCP) 인증,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시설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산지 농산물 가공식품 전초기지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천연색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또는 나주농업진흥재단 고시공고·공지사항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나주시천연색소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경쟁력과 농식품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천연색소센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다"며 "최첨단 가공설비 활용도를 높여 우리 농산물 소비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바닷가 '푸른 목장' 파래 수확 한창



장흥군 관산읍 우산도 인근 바닷가에서 파래 수확이 한창이다. 건강한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래는 철분과 칼륨, 요오드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특히 특랑만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파래는 향이 깊고 식감이 부드러우므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진행

3억원 확보 저소득 주민 건강먹거리 지원...4만~6만9000원

장성군이 국비 3억여원을 확보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먹거리 복지의 실현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지원사업이다. 올해 처음 공모에 선정된 장성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억42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주민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카드는 3월2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만원, 2인 5만 7000원, 4인 6만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

등 지급된다.

채소, 과일, 흰우유, 육류, 잡곡, 꿀을 구입할 때만 결제가 되며 이외의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결제 가능한 매장도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로 제한된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달이 바뀌면 쌓이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차량 미운행자와 거동 불편 주민, 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장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자택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꾸러미 배달서비스'도 시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주민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탄소중립 기반 조성" 장흥군 나무 30만 그루 심는다

올해 12억 투입 142ha에 내달말 완료...안정적 목재 공급

장흥군이 탄소중립 기반 조성안정적 목재공급을 위한 대대적인 조림사업에 착수했다.

장흥군은 올해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기반과 안정적인 목재공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의 올해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성 78ha, 큰나무 조림 19ha, 지역특화 조림 42ha, 내화수림대 3ha 등 총 142ha(29만2000본) 규모로 진행한다.

이번 조림사업은 임목 별채를 완료한 임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목재이용 증진, 국산 목재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편백, 백합나무와 같은 경제수종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용 큰나무(편백 4년생)를 재해 우려지에 우선 식재할 예정이다.

산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옷, 두릅, 음나무 등 비교적 단기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는 지역특화조림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경작을 못하고 있는 밭과 논을 발굴해 나무를 식재하는 유희토지 사업을 추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주의 소득창출을 동시에 이뤄 나갈 방

침이다.

총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조림수종이 건강하게 활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림 완료 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산림을 가꾸갈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나무를 심는 일은 10년, 20년 후 푸른 숲 장흥의 미래를 내다보며 추진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조림사업과 관리를 통해 지역 산림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생명나눔 헌혈' 동참해 주세요"

내일 보건소·군청 앞 실시

강진군이 4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응급 혈액 확보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하여 관

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헌혈 행사는 참가자 전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 동편 주차장과 강진군청 앞(헌혈 차량) 2개소에서 실시하며, 참여 희망자는 헌혈 전담 읍주나 피로 활동

을 삼가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날 헌혈 참여자는 간 기능 검사와 B형·C형 간염 검사를 포함한 11종의 혈액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 4시간 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국가적으로 직면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호응

월 2회씩 연중 무료 실시

함평군의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 세탁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이불, 옷 등 각종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함평군장애인보조직업장에서 사업을 위탁해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2회씩 연중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120여



명의 주민들이 무료 세탁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3월호

2022년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걷고 싶은 도시
광주를 꿈꾼다

— 걸으면 도시가 살아난다
— 도시에 퍼지는 푸른 입김, 행복해지는 길
— 걷고 싶은 길, 연대와 이야기 있는 살고 싶은 도시
— 걷는 사람 중심 공간 대 전환, 일본의 워커히비

영도 코티지
美路 味路

생태관광의 최첨단 **구례의 새봄, 싱그럽다**

- 5년만에 복원된 화엄사 4사자3층석탑
- 산수유마을과 쌍산계, 구례수목원과 지리산정원
- '지리산과 하나되기' 산수유와 '백내리는 당산나무' 김부각
- 우리일로 만드는 수제과자점 '사나레밀'

연중 기획-광주 한 바퀴
GWANGJU TOUR

#3월 광주여행
#K-POP #Fan zone
#백화

에앙 초대석
시민과 인문학 소통하는 철학자
성진기
"철학이 대중 속에 숨쉬면 좋겠어요"

헤이문화기행 4- 독일 뉘른베르크
중세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뒤러의 예술과 고풍 성벽을 만나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해인사
샷된 없는 깨달음의 청정도량

문화를 품은 건축물
자연 담은 '물 위의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문화 화제
박서보예술상 제정으로 본 광주비엔날레와 예술상
회제의 전시
광주에 동지 트 외지 문화인들이 말하는 '광주라는 도시'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산밥에 총각김치면 죽해"
윤형근, 그림처럼 단순한 점심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더 퍼더와 비제' '진주조개잡이' 아리아